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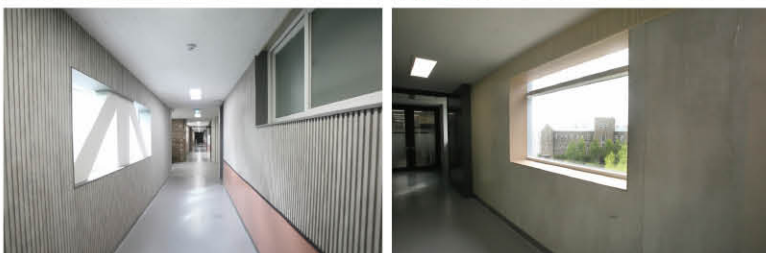
초록 세상 속으로 떠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 고1,2 소규모테마여행 -



더 안전하고 든든한 배움터로, 내진 보강 공사 실시

환일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어떠한 재해에도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내진 보강 공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지진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시설 안전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단단하게 보강하는 프레임 설치 및 벽체 강화 작업이 정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들의 엄격한 구조 안전 진단과 감리를 거쳐 공사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한층 더 높였다.



초록빛 활기로 가득 찬 캠퍼스, 친환경 잔디 운동장 새 단장

환일고등학교의 중심이자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던 운동장이 마침내 새 옷을 입고 전면 개장했다. 본교는 기존 인조 잔디의 사용 수명이 다함에 따라, 마모된 잔디와 노후된 충전재를 모두 철거하고 최신형 친환경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운동장 재정비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새롭게 깔린 인조 잔디는 중금속과 유해 물질 검사를 완벽히 통과한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피부에 닿아도 안전하며 충격 흡수율이 뛰어나 학생들이 체육 활동 중 부상을 입을 위험을 대폭 낮추었다. 외관 역시 더욱 선명한 초록빛을 띠어 교정 전체에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초록 세상 속으로 떠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학교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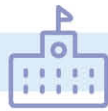
2면 뜨거운 태양 아래, 단단해질 우리들의 여름방학

3면-8면 학교행사 및 소식

9면 명사특강

10면-11면 소감문

12면 수상 및 2학기 주요일정



뜨거운 태양 아래, 단단해질 우리들의 여름방학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 세상을 바꾸는 협력의 힘

환일고등학교 교장 최원호



사랑하는 환일 학생 여러분, 한 학기를 성실히 마무리한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은 쉬는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혼자 뛰어난 사람보다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목표를 이루는 협력의 힘을 배우기 바랍니다. 사회성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배려와 공감, 책임감 있는 행동은 여러분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의 재능

과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 보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가족과 대화하며 마음의 힘도 함께 키우기 바랍니다. 친구와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경험은 오래도록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감사와 배려를 표현하는 작은 실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안전의식은 즐거운 방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협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 우리 학교는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때 더 넓은 세상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더욱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새 학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물든 환일 동산, 제 12회 합창제

지난 5월 27일, 본교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전교생과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환일의 가장 큰 축제인 '12회 합창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는 운동장 친환경 잔디 교체 공사 관계로 예년과 달리 실내 강당에서 진행되었으나, 학생들의 열기와 함성은 더욱 뜨겁게 울려 퍼졌다. 본 합창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공존하는 본교의 독특한 교육 환경을 살려 상호 유대감을 증진하고 연대의 정을 나누는 환일만의 자랑스러운 전통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합창제는 고등학교 모든 반이 중심이 되어 무대를 꾸몄다. 각 반은 학기 초부터 열심히 준비한 노래를 차례대로 무대에서 부르고 보여주었다. 고등학생들은 잔잔한 가곡부터 신나는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노래를 골라 반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지휘와 반주를 맡은 학

생들의 신호에 맞춰 반 친구들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깨끗한 화음을 만들 어냈다. 관객석에 앉은 학생들 역시 중학교 후배들과 다른 고등학교 반들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며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합창제의 가장 마지막 순서는 모든 학생의 무대가 끝난 뒤에 나온 교생 선생님의 깜짝 특별 무대였다. 이 무대는 고등학교 생활에 새로 적응하고 있는 1학년들을 포함해 학업에 지친 모든 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스스로 준비한 순서였다. 무대에 오른 선생님들은 평소 수업 시간의 진지한 모습 대신 열심히 연습한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1학년 이주원 기자

CHORAL
FESTIVAL 12th



일시 : 2026. 5. 27. (수) 13:00
장소 : 환일중·고등학교 강당

CHORAL
FESTIVAL 12th

모시는 글

5월의 숲은 더욱 짙어지고, 하늘은 맑고 청명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끝자락을 환일 아들의 열정 어린 함창으로 함께 채울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화음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잊지 못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질 아름다운 하모니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합창제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 5. 27.
환일중학교 교장 박종관
환일고등학교 교장 최원호





학교행사 및 소식

자랑스러운 환일의 새 얼굴들, 신입생 입학식

지난 3월 3일, 본교 강당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축하와 격려 속에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처음으로 교정을 밟은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앞으로 펼쳐질 고교 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본 좋은 긴장감이 교차했다.

이번 입학식은 미션스쿨인 본교의 오랜 전통에 따라 신입생들의 앞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예배와 함께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선배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교문에 들어선 후배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최원호 교장선생님은 격려사를 통해 환일 동산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3년간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권면했다. 이어 진행된 입학선서식에서는 신입생 대표가 단상에 올라 본교의

건학 이념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환일인으로서 학업에 정진하고 교칙을 준수할 것을 전교생 앞에서 힘차게 다짐했다. 대강당에 울려 퍼진 신입생들의 씩씩한 목소리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진지한 결의를 느끼게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신입생들은 각자 지정된 교실로 이동하여 담임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반 친구들과의 설레는 첫 만남을 가졌다. 이어진 학급 오리엔테이션 시간 동안 학생들은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환일고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다졌다.

희망찬 첫발을 내디딘 2026학년도 신입생 모두가 우리 학교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꿈을 마음껏 펼치며 훗날 사회를 밝히는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온 환일 가족의 마음을 모아 기대하고 응원한다.

1학년 김연우 기자



책장 너머로 넓어진 시야, 세계 책의 날 행사

지난 4월 23일 독보도서관에서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책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서관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 문화행사를 운영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도서관은 교과서 밖의 흥미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지적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환일인들의 발걸음으로 연일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 찼다. 의미 있는 축제 주간의 포문을 연 첫날에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독서 활동을 강력히 장려하기 위해 본교 독서 교육의 핵심인 '독서 아카데미'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 주간은 평소 독서를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책과 교감하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편안한 놀이터처럼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오감 만족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무작위로 제시된 단어들을 조합해 자신만의 문학적 감수성을 뽐내는 '시어로 시 찾기', 도서 검색대와 서가를 자유롭게 누비며 숨겨진 책을 찾는 '너의 이름은?',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고민과 마음의 상처를 책으로 치유해 주는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인 '책 처방전 북큐레이션' 등 기발하고 흥미진진한 코너들이 마련되어 매 시간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환일의 학생들이 지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쌓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를 즐기고, 책 속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독서 교육 프로그램과 소통형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1학년 신상원 기자



지혜의 깊이를 더하다, 독서 아카데미

지난 5월 14일, 독보도서관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정립하기 위한 '독서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시 중심의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아카데미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는 '기초 독서법과 문해력 키우기' 세션에 참여하여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반면 고등학교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연계된 도서를 선택해 깊이 읽고 토론하는 '주제별

심층 독서 및 비평' 세션에 참여하여 한층 더 성숙한 탐구 역량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개별 독서 토론을 진행하는 등 능동적인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1, 2학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읽은 책을 추천하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에는 선배배간의 따뜻한 지적 교류와 연대의 정이 싹트기도 했다. 이렇게 독서 아카데미를 통해 좋은 책을 접하고 올바른 독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친구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면서, 평소 하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학년 이주원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환일의 품에서 피어나는 꿈, 신입생 환영예배

지난 3월 9일, 본교 대강당에서는 입학식의 설렘을 이어 신입생들을 정식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신입생 환영예배'가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입학식 당시 간소하게 진행되었던 예배와 달리, 이번 환영예배는 본교의 건학 이념을 신입생들과 깊이 공유하고 이들이 환일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이하는 본 행사로 기획되었다. 예배는 강당을 가득 채운 경배와 찬양팀의 열정적이고 영성 깊은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찬양팀의 뜨거운 선율에 맞춰 신입생들은 긴장감을 내려놓고 예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예배를 마친 후, 학교 측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을 신입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 가득한 간식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뜻밖의 따뜻한 환대에 간식을 받아든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으며, 강당을 나서는 발걸음마다 앞으로 펼쳐질 고교 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 묻어났다. 환일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과 지혜의 첫 단추를 채운 신입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기를 온 환일 가족의 마음을 모아 응원한다.

1학년 이주원 기자



말씀 안에서 지혜의 길을 걷다, 기드온 성경 전달 예배

지난 3월 16일, 본교 대강당에서 거행된 정기 신앙 예배 시간 중 환일 동산울림의 은혜로 가득 채운 아주 특별한 중정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제기드온협회 한국연합회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된 '기드온 성경 전달식'이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매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이번 성경 전달식은 학교에 첫발을 내딛은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재학생들이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형성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 되었다. 예배의 일환으로 경건하게 진행된 전달식에서 학생들은 한 손에 꼭 들어오는 보라색 기드온 신약성경을 소중히 전달받았다. 성경을 손에 쥔 환일인들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리더십을 갖춘 지혜로운 인재로 거듭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했다. 성경을 품에 안고 강당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학기에 대한 설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겠다는 진지한 결의가 엿보였다. 매년 이어져 오는 이 전통은 앞으로도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신앙 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학년 김연우 기자



어둠을 밝힌 부활의 빛, 부활절 촛불예배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절 촛불예배'가 지난 4월 6일 월요일 저녁, 본교 대강당과 교정 일대에서 경건하게 거행되었다. 전교생과 교직원이 모두 참석한 이번 예배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한마음으로 영적 회복과 소망을 기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배는 찬송과 기도로 경건하게 시작되었으며,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해 온 합창부의 찬양 순서에서 감동이 배가되었다. 합창부원들이 빚어낸 천상의 화음과 아름다운 선율은 대강당 안을 가득 채우며 모인 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선사했다. 이날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어둠이 짙게 내린 교정에서 진행된 '촛불 점화' 시간이었다. 선교부장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꽃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손과 손을 거쳐 서로의 초로 옮겨 불을 때마다, 어둠된 운동장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 차며 장엄한 장관을 연출했다. 학생들은 조용히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며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고,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다.

1학년 이주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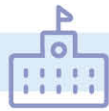


찬양의 기쁨으로 하나 되다, 백석예술대학교 초청 찬양예배

지난 5월 13일 월요일 3교시, 본교 대강당에서 교직원과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큰 은혜와 열기 속에 '백석예술대학교 초청 찬양예배'가 개최되었다. 이번 예배는 백석예대 찬양단과 댄스팀, 그리고 백석예대 교목실장인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평소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색다른 형태의 신앙 축제로 꾸며졌다. 예배의 포문을 연 백석예대 찬양단은 대강당의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찬양단의 리드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신나는 빠른 템포의 찬양 2곡을 함께 열창했고, 이어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는 잔잔한 찬양 2곡을 통해 깊은 영적 위로를 경험했다. 이어진 말씀 시간에는 허찬 목사님의 마태복음 7장 7~8절을 본문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다. 허 목사는 진로와 학업으로 고민이 많은 환일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삶의 가치를 따뜻하게 격려하여 큰 울림을 주었다. 은혜로운 말씀 뒤에는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백석예대 댄스팀의 파워풀하고 멋진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전문적인 안무와 열정적인 무대 매너에 학생들은 환호성과 박수갈채로 화답하며 축제의 현장을 온전히 즐겼다.

1학년 조시원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교정에 피어난 감사의 카네이션, 스승의 날 행사

지난 5월 15일 본교 대강당에서 교직원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뜻깊은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감동이 교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이 오랜 시간 땀 흘려 준비한 축하 공연은 대강당을 깊은 감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부른 아름다운 합창과 정성껏 준비한 감사 편지는 선생님들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뜻깊은 수상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경신 선생님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상을, 이화평 선생님이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경신 선생님은 이 뜻깊은 학

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화평 선생님 역시 교단에 선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전교생과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진 이번 스승의 날 행사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의 가치를 되새기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학년 김연우 기자



언제나 저희 앞을 비추어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며

3학년 학생회 문예부장 배승찬



안녕하십니까, 졸업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선 3학년 배승찬입니다.

오늘의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선생님들을 위한 ‘스승의 날’입니다. 고3이 되어서야 비로소 저희를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분주히 교실을 향하시던 발걸음과 칠판 가득 묻어나는 분필 가루 속에는 저희를 향한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높은 산 먼저 올라서서 어진 손 내밀며 웃고 있는 이”라는 구절처럼, 선생님들은 늘 저희보다 앞서 험난한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는 저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제 곧 정든 교정

을 떠나 세상이라는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가르침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가능성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덕분에, 저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선택과 도전의 순간마다, 교실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던 선생님의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훗날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감사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환일의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의 제자로 머물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교단에서 마주한 4주간의 꿈, 교생 실습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9일 동안 우리 학교에서 교생 실습이 진행되었다. 우리 반 교생 선생님인 철학과 김명훈 선생님을 비롯한 교생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의 시설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을 참관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2주차에는 담당 교과 수업을 참관하며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우고, 앞으로 진행할 수업을 준비하였다. 3주차에는 교생 선생님들이 직접 담당 교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4주차에는 학급 운영에 참여하며 교사의 역할을 경험하였고, 실습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생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실습을 마쳤다. 4주일이라는 시간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단에 선 예비 교사들에게는 진정한 교사로 거듭나는 값진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며, 환일의 학생들에게도 신선한 배움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학년 김진호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호국영웅의 발자취를 따라, 안보체험학습

지난 5월 7일, 본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발자취를 따라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뜻깊은 '안보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년별로 역사의 현장을 나누어 방문하여, 학생들이 교과서로만 접하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인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 '서해수호관'을 방문했다. 서해수호관은 제1·2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다 희생된 영웅들의 숭고한 기록과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된 호국 안

보의 산실이다. 전문 문화해설사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전시관 내부를 둘러본 학생들은 영웅들의 유품과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시각 자료들을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관람했다. 특히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적의 포탄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던 해군 장병들의 용기 있는 사투와 희생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전시장 내부에 깊은 숙연함과 고마움의 침묵이 감돌기도 했다. 본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올바른 안보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체험 중심의 나라사랑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이어갈 방침이다.

1학년 이주원 기자



캠퍼스에서 마주한 나의 미래, 대학탐방 및 멘토링 활동

지난 5월 13일,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각자의 숨겨진 진로를 주제적으로 고민하고 동경하던 대학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는 뜻깊은 '대학탐방 및 멘토링 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교실 안 책상을 벗어나 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기를 얻고, 자신만의 미래의 꿈을 한층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개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조별로 지정된 대학교를 찾아 활기찬 대학 문화가 숨 쉬는 캠퍼스 곳곳을 탐방하였다. 특히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배 대학생 멘토들과 발을 맞추어 진행된 캠퍼스 투어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멘토들로부터 대학교의 깊은 역사와 학과별 자부심이 묻어나는 특징에 대해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설명을 들었다. 나아가 평소 깊은 관심을 두고 있던 전공 강의실과 대형 도서관, 활기 넘치는 학생식당 등 대학의 다양한 인프

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미래의 대학 생활을 설렘 가득하게 간접 체험했다. 이번 탐방의 핵심이었던 '선배와의 멘토링' 시간에는 대학 선배들이 치열하게 겨여낸 실제 공부 방법과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팁, 그리고 후회 없는 학과 선택 기준 등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과 지적 자극을 동시에 수확한 이번 대학탐방은, 환일의 1, 2학년 학생들에게 단순한 견학을 넘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주제적으로 디자인하는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오늘 캠퍼스에 새긴 환일인들의 푸른 발걸음이 내일의 찬란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1학년 김연우 기자



전통의 멋에 추억을 담다, 고3 문화탐방

지난 6월 5일, 본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 준비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경복궁 옆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시절의 소중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졸업사진 촬영과 함께, 도심 속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정취를 직접 느끼는 문화탐방을 겸하여 진행되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진행된 이날 촬영의 주인공은 단연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었다. 많은 친구들이 다채로운 색감의 한복을 대여해 입고 박물관과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풍경 속에 녹아들었다.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환일인들의 능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박물관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외국인들은 연신 감탄하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학생들은 민간 외교관이 된 듯 뿌듯한 미소로 화답하며 국경을 초월한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또한 학생들은 야외 전시장에 마련된 전통 놀이 체험장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제기를 차고, 마음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는 팽이를 정성껏 돌리며, 넓은 마당에서 굴렁쇠를 굴리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교실 밖을 벗어난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다. 친구가 제기를 떨어뜨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유쾌한 야유와 굴렁쇠를 능숙하게 굴릴 때 쏟아진 환호성은 박물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바쁜 수험 생활 속에서 전통의 멋과 현대의 청춘이 어우러진 이번 탐방은, 3학년 학생들에게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심포가 되었다. 오늘 얻은 밝은 에너지가 남은 여정을 완주할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한다.

3학년 정대상 기자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체험학습

지난 4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 경기장에서 개최된 '서울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를 찾아 세계적인 선수들이 펼치는 뜨거운 도전을 눈앞에서 관람하며 깊은 감동을 나눴다. 이번 관람은 장애인 선수들의 신체적 장벽을 뛰어넘어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날 경기장에서 환일고 학생들은 휠체어와 라켓이 하나가 된 듯 코트 위를 맹렬하게 질주하는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에 매료되었다. 숨 막히는 랠리 속에서 강력한 서브와 날카로운 스트로크가 터질 때마다 관람석의 학생들은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비장애인 경기 못지않은 빠른 공수 전환과 수준 높은 전술을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대회 관람은 평소 라켓볼 선수로 코트를 누비며 맘 홀려온 2학년 우태인 학생에게 더욱 남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우태인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라켓볼을 하면서 라켓 스포츠가 얼마나 정교한 감각과 엄청난 양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지 몸소 잘 알고 있다"며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는 선수들의 모습에 깊은 경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대다수의 관중은 화려한 경기장 위에서 보이는 선수의 멋진 플레이에만 주목하지만, 저 정점에 서기 위해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수천, 수만 번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쏟아냈을 피땀 어린 노력이 가슴 깊이 전해졌다"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훈련에 매진해 온 선수들의 집념과 자세를 본받아, 나역시 나의 코트와 학업에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겠다"고 성숙한 소감을 밝혔다.

1학년 김연우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AI로 사회를 바꾸는 세상, AI 중점학급 진로특강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2026학년도 AI 중점학급 진로특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활용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한일인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9시간에 걸쳐 밀도 있게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체계적인 인프라 속에서 펼쳐졌다.

5월 14일과 6월 11일에는 최신 설비를 갖춘 본교 AI실에서 기본 역량을 다졌으며, 5월 28일에는 서강대학교 리치과학관 909호로 자리를 옮겨 대학 캠퍼스의 생생한 연구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특강의 강연은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소정민 교수가 맡아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최신 기술 트렌드까지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를 다각도로 제공하였다.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 중심의 산출물 제작 활동이 핵심이었다. 학생들은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팀별 프로젝트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였다.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구체적인 산출물을 기획·제작하였으며, 교수님의 세심한 중간 점검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최종 발표 작성을 마쳤다. 협동과 조율을 통해 실제 작동하는 AI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은 한층 더 빛을 발했다. 본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한일인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롭고 수준 높은 미래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1학년 김연우 기자



미래를 밝힐 창의 융합의 첫걸음, 영재학급 입학식

지난 4월 3일, 본교에서 2026학년도 영재학급 입학식을 거행하며 미래 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 분야를 선도할 창의 융합형 핵심 인재 양성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엄격하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은 신입 원생들은 지적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학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개강한 영재학급은 수학, 과학, 정보 등 깊이 있는 기초 과학 분야의 탐구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진형 융합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에서 탈바꿈하여 스스로 탐구 질문을 던지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해답을 도출해 내는 토론 및 프로젝트형 수업(PBL) 위주의 밀도 높

은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순한 암기 공부를 넘어 교과서 밖의 심화된 과학과 정보 기술을 배우고, 만만의 창의적인 탐구 산출물을 직접 만들어가는 열정 가득한 영재학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질문하며 지적인 모험을 즐기는 시간으로, 한일의 인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훗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1학년 김연우 기자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의 내일을 그린다
1학기 수업 공개 및 학부모 방문의 날

지난 3월 17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깊은 이해를 돕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 수업 공개 및 학부모 방문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부모가 교정을 방문하여, 자녀들의 실제 학습 환경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였다. 행사의 포문은 강당에서는 2026학년도 학교 전반의 운영 방향과 학년별 맞춤형 진학 로드맵, 그리고 주요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대학 입시 제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학 전략이 제시되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각 교실에서 일제히 진행된 생생한 수업 공개로 이어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수업을 선보였으며, 학생들은 부모님의 시선 속에서 평소보다 진지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뒤편에서 참관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제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지적 배움을 이어가는지 눈으로 직접 지켜보며 한일 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했다. 수업 공개 이후 '담임교사와의 1:1 밀착 상담' 시간은 소통의 깊이를 더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관계부터 학업 성적,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고민을 담임교사와 솔직하게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긴밀하게 연계된 다각도 밀착형 생활 지도를 위한 소중한 소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가정이 하나의 교육 철학을 온전히 공유하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진정한 교육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1학년 이주원 기자

우리 손으로 투표한 한일의 내일
제74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새로운 학생 자치의 주역을 선출하는 '제74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의 대진표가 최종 확정되며 캠퍼스가 뜨거운 선거 열기로 가득 차고 있다.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예년과 달리 2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총 3개 조의 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3파전 구도에 전격 돌입했다. 같은 학년 동급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만큼, 서로의 성장과 학교생활 속 실질적인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밀도 높은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출마한 3명의 2학년 후보들은 저마다 학교의 중장기적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포심 잡기에 나섰다. 학우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급식 환경의 체계적 개선부터 학생 자치 공간의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교내 문화·체육 행사의 다각도 확대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대거 제시되어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은 활기찬 아침 등굣길 교문 앞과 점심시간 급식실 주변을 적극 활용해 개성 넘치는 피켓 홍보와 열띤 유세 활동을 펼치며 전교생의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 과정을 지켜보는 학우들의 태도 역시 성숙하다. 선거벽보와 공약집을 꼼꼼히 비교하며 단순한 인지도 선거가 아닌 진정한 학교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찾기 위해 진지한 눈빛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교정 곳곳에서 목격된다. 동급생 간의 치열하지만 정당당한 경쟁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제74대 선거를 통해, 한일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뤄낼 신뢰받는 학생 자치 기구가 탄생하기를 온 한일 가족의 마음을 모아 기대한다.

1학년 이주원 기자





학교행사 및 소식

초록빛 활기로 다시 뚝다! 새 잔디 운동장 개공 기념 고 1, 2 올스타 축구대회

지난 7월 2일,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호연지기를 기르던 운동장이 오랜 잔디 교체 공사를 완벽히 마치고 고 1, 2 올스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노후 시설 리모델링 완료를 기념하고, 학업에 지친 1, 2학년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학급 구성원 간의 끈끈한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르기 위해 전격 마련되었다. 폭신폭신한 쿠션감과 뛰어난 안전성을 자랑하는 새로운 잔디 위에서 경기가 진행된 만큼, 학생들은 부상 걱정 없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1학년 올스타와 2학년 올스타 경기를 통해 선후배 간 소통을 잘 보여주었으며, 각 반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은 강력한 슈팅과 육탄방어로 상대의

골망을 위협했고, 멋진 골이 터질 때 마다 초록빛 그라운드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새로운 잔디 구장 주변을 둘러싼 학우들의 응원 열기 또한 코트 위의 열기 못지않게 뜨거웠다. 학생들은 학급에서 정성껏 준비한 응원 도구와 슬로건을 흔들며 목청 높여 친구들의 이름을 연호했고, 경기 중 넘어진 상대 팀 선수를 일으켜 세워주는 성숙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어 사제 간, 교우 간의 훈훈한 정을 더했다. 새롭게 태어난 그라운드 위에서 건강한 신체와 호연지기를 기른 환일의 인재들이, 교실 안에서도 이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1학년 이주원 기자



멈추지 않는 승전보! 그라운드와 코트를 접수한 '환일 천하' 스포츠클럽 축구, 농구

환일고 스포츠 클럽 축구반의 기세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지난 5월 27일에 펼쳐진 스포츠클럽 축구 대회에서 강호 경북고등학교를 만난 환일고는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1 대 0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터진 극적인 결승 골과 경기 종료 직전까지 한 점 차의 리드를 지켜낸 육탄 방어가 빛난 경기였다. 승리의 기세를 이어받아 6월 13일에 열린 대신고등학교와의 교육감배 경기에서도 환일고는 완벽한 공수 조화로 대신고를 2 대 0으로 완파했다. 미드필더진의 유기적인 패스로 중원을 장악하며 연이어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고, 수비진 역시 단 한 점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라운드 위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스포츠클럽 농구반도 안방에서 치러진 예선전에서 압도적 화력으로 2연승을 했다. 지

난 6월 11일 목요일, 본교 다목적실에서 뜨거운 함성 속에 진행된 서울시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농구예선전에서 농구 대표팀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하루 만에 2승을 쓸어들었다. 오후 4시에 열린 성동공업고등학교와의 첫 경기에서 환일고는 빠른 공수 전환과 높은 슛 성공률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인 끝에 42 대 24로 가볍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어 오후 5시 40분에 치러진 대신고등학교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체력적 부담을 이겨내는 강한 집중력을 발휘,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며 47 대 29로 대승을 거두었다. 홈 코트를 찾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학우들의 함성은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3학년 정대상 기자



나를 지키는 올바른 건강한 선택, 흡연예방교육

지난 4월 16일, 강당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고 올바른 금연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흡연예방교육'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세로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기 흡연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고, 구체적인 건강 관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전격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외부에서 초청된 청소년 보건 전문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청소년기 흡연이 두뇌 발달 및 신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담배에 포함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각 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설명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분별하게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흡연 기구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과 정보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일상 속 흡연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도록 도왔다. 학생들의 몰입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양방향 소통 순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 중간과 마무리 단계에 이날 배운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바이벌 퀴즈 시간이 진행되었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는 풍성한 선물이 증정되었다. 학생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퀴즈 연단에 참여하며 교육 내용에 높은 집중도를 보여 주었다. 이번 흡연예방교육은 환일의 학생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스스로의 몸과 미래를 소중히 지키겠다는 건강관심사를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성숙하고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교육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캠퍼스 전체에 청정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학년 김연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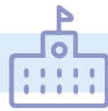


위기 속에서 안전의 길을 찾다, 민방위 대피 훈련

지난 5월 14일, 최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실질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고 교내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을 전격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비상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수많은 인원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안전사고를 완벽히 예방하고, 신속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게 대피하는 행동 요령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보 사이렌이 교내 전역에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교사들의 일사불란한 지도와 가이드에 따라 학급별로 지정된 대피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며 이동을 시작했다. 전교생은 최종 집결지인 대강당으로 일제히 이동하는 긴박한 과정 속에서도 앞 사람을 밀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며, 머리를 보호하고 차분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계단과 복도 등 병목 현상이 발생해 인파 밀집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좁은 구간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차례를 지켜, 단 한 건의 부상이나 안전사고 없이 전원 안전하게 대강당에 도착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강당을 집결한 이후에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전문 안전 교육 영상 시청이 체계적으로 이어졌다. 영상에는 공습 및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수칙과 방독면 착용법, 대피소 찾기 요령 등이 시각 자료와 함께 상세히 담겨 있어 학생들이 비상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처법을 각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1학년 이주원 기자





명사특강

기후 위기 시대, 과학으로 세상을 보다, 명사특강 - KBS 신방실 기상전문기자

지난 4월 1일, 학교 강당에서 KBS 신방실 기상 전문기자를 초청한 명사특강 강연이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통찰력을 기르고, 언론인으로서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신방실 기자는 '기후 위기 시대, 과학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국내 1호 여성 기상학 박사이자 베테랑 기상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겪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통계 제시를 넘어, 데이터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냈다.

신방실 기자는 기상 정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한 일고 학생들에게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

실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상 오보에 대한 대처법, 전문 기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그리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개인의 실천 방안 등 학생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져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후 세미나실에서 진로가 기자와 관련된 분야이거나 기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추가적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진로나 기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신방실 기자님의 정성스러운 답변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신방실 기자 초청 특강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지혜를 선사하며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1학년 김연우 기자



과거의 유물에서 미래의 지혜를 읽다, 인문학 특강

지난 6월 10일 수요일 5, 6교시, 본교 경천관 2층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역사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을 기르기 위한 '인문학 특강'이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이태희 학예연구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박물관에서 역사읽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에서 이태희 학예연구관은 박물관 유리창 너머에 박제되어 있던 유물들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연구관은 "박물관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모아둔 곳이 아니라, 수백 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생각, 그리고 시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대한 역사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물 하나에 얹힌 흥미진진한 비화와 역사적 맥락을 전

문가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풀어내어 학생들의 집중도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서 텍스트로만 접하던 역사를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유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열정적인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질문이 쏟아지며 역사와 인문학에 대한 한일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 1, 2학년 학생들에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뜻깊은 인문학적 심포가 되었다.

1학년 김연우 기자



명사특강 소감문

되돌릴 수 없는 미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현재

1학년 김연우



매일 뉴스로 접하는 날씨 정보는 나에게 그저 '오늘 우산을 챙겨야 할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를 결정하는 단순한 지표에 불과했다. 그러나 KBS 기상 전문기자이신 신방실 작가님의 명사특강을 들은 후, 날씨는 단순한 일상을 넘어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경고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가님은 대학 시절 수학과 대기과학을 전공하며 꿈을 키웠고, 지금은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계신다. 특히 직접 북극 스발바르 제도에 다녀와 이상기후의 원인을 취재했던 생생한 경험담은 대강당에 모인 우리 모두의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북극곰 대신 모기가 창궐하고 빙하가 소실되고 있는 북극의 현실을 시각 자료로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번 강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기후재난'과 '생존'이었다. 지구의 온도가 마지노선인 1.5°C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폭염과 극한 열대야는 단

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했다. 매년 강도가 심해지는 기습 폭우와 기후위기가 불러올 식량난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환경 문제가 정말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왔다.

작가님은 "지구의 고장 난 심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축과 같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강연을 듣고 나오는 길에, 그동안 분리배출을 소홀히 하거나 일회용품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나의 행동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미래'라는 작가님의 책 제목처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번 특강은 나에게 단순한 지식의 확장을 넘어,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제는 교실에서 서부터 텀블러를 사용하고 전기를 아끼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현재가 모여 더 나은지구의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소감문



제 12회 합창제 소감문

내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의 소리를 채우며,
‘우리’라는 화음을 배우다

1학년 이주원



처음 합창대회 연습을 시작했을 때는 솔직한 기대감보다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각자 개성과 목소리가 다른 반 친구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음정과 박자가 서로 맞지 않아 헤매기도 했고, 뜻대로 연습이 흘러가지 않아 서로 지치고 예민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매일 방과 후와 쉬는 시간까지 쪼개어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파트별로 모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점차 하나의 소리로 맞아떨어지는 경이로운 과정을 보며 우리 반 안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며 깨달은 가장 큰 배움은 합창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조화’라는 점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만 크게 내기보다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음량을 맞추어가는 과정은 무척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무대를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있었지만, 오히려 그 부담감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당겨주며 연습실 분위기는 갈수록 따뜻해졌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대회 당일, 조명이 눈부시게 켜진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떨렸지만, 전주가 시작되자 연습 때보다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지휘를 하는 친구의 손짓과 눈빛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옆에 선 친구들의 숨소리에 맞춰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 짧은 순간이 가슴 가득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무대를 완벽히 마치고 내려와 서로 고생했다며 어깨를 두드리주고 환하게 웃던 친구들의 얼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창대회는 단순히 노랫말을 외우고 가창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하나의 결실을 맺는 ‘함께의 가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쳐 가는 학교 행사 중 하나로 여겼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에게는 학창 시절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 곡을 완벽히 부르기 위해 다 함께 땀 흘렸던 그 소중한 시간들은 우리 반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살아 숨 쉴 것입니다.



AI 중점학교 진로특강 소감문

차가운 인공지능에 따뜻한 시선을 더해,
지구의 내일을 기획하다

1학년 김인우



처음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를 받았을 때는 실뻘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생성형 AI 도구라는 단어들은 인문학을 좋아하는 나에게 그저 멀고 딱딱한 기술의 영역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주간 총 9시간 동안 학교와 대학 연구실을 넘나들며 치열하게 참여했던 시간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미래를 향한 진로의 나침반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출물을 만드는 ‘실습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교과서 속 글자만으로 보던 거대한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 해결하려다 보니 초반에는 기획 단계부터 막막하고 코딩 오류로 막히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교 AI 실의 최신 장비를 활용해 기본기를 다지고, 서강대학교 리치과학관 연구실로 자리를 옮겨 컴퓨터공학과 소정민 교수님께 직접 1:1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이디어는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생생한 연구 환경 속에서 교수님의 세심한 조언을 들으며 코드를 수정해 나갈 때는, 마치 진짜 미래를 연구하는 첨단 과학자가 된 듯한 깊은 몰입감과 짜릿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갈등을 조율하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실제 작동하는 AI 산출물을 완성해 내어 최종 발표를 마쳤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만큼 가슴 벅찼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배움은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이 진정 가치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기술 그 자체보다 ‘인간과 사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9시간의 여정이었지만, 저에게는 막연했던 미래 역량을 몸소 체득하고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볼 수 있었던 거대한 느낌표였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학업의 여정 속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논리적 사고력과 융합적 열정을 잊지 않고, 기술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환일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독서 아카데미 참여 소감문

책장을 넘기며 나의 길을 찾고,
함께 나누며 생각의 지평을 넓히다

1학년 신상원



매일 입시와 시험이라는 팍팍한 궤도 위를 달리다 보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느덧 사치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과서와 문제집 지문만을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가던 저에게, 이번 ‘2026 독서 아카데미’는 학업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지식의 즐거움을 온전히 되찾아 준 따뜻한 섬표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1학년인 저는 제 진로와 관심 분야에 깊이 연계된 도서를 스스로 선택해 읽는 ‘주제별 심층 독서 및 비평’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혼자서 책을 읽을 때는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기도 버거웠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책 속에 담긴 메시지를 주체적으로 소화해 내는 능동적인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순서는 독보 도서관을 가득 채웠던 ‘조별 독서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었음에도 저마다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다른 것을 보며 신선한 지적 자극을 받았습니다. 내 진로와 관련된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 친구들과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평소 혼자 앓고 있던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의 해답을 실타래 풀듯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아카데미는 1, 2학년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읽은 책을 추천하고 감상을 공유하는 뜻깊은 지적 연대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열정으로 기초 독서법을 배우며 책의 재미에 눈을 뜨기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선후배 간에 따뜻한 지적 교류를 나누며 환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독서 아카데미는 저에게 단순한 책 읽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도서관 문을 나설 때, 제 가슴속에는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지혜와 주체적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든든한 용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중한 지적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준 독보 도서관과 함께 땀 흘리며 토론해 준 학우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책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되겠습니다.



고3 문화탐방 및 졸업사진 촬영 소감문

전통의 마당에서 마지막 한 페이지를 쓰다

3학년 정대상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숨 막히는 모의고사 점수와 다가오는 대입의 압박감으로 마음이 조급해지던 고등학교 3학년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교실 책상 앞에 앉아 실 틈 없이 달려오던 우리에게, 지난 6월 5일 찾아온 국립민속박물관으로의 문화탐방은 수험 생활의 모든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준 참으로 고마운 ‘오아시스’였습니다.

이번 탐방은 고등학교 시절의 소중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졸업 사진 촬영’을 겸하고 있어 출발 전부터 모두의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이날의 백미는 단연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다채롭고 고운 색감의 한복을 갖춰 입은 친구들의 모습은 평소 교실에서 보던 장난기 가득한 모습과 달리 늠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 한복을 입은 우리 환일인들이 녹아들었을 때,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떠난 듯한 묘한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박물관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 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환한 미소로 촬영에 응하며, 단순히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을 넘어 자랑스러운 한국의 미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된 것 같은 깊은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았습니다.

야외 전시장에 마련된 전통 놀이 체험장은 그야말로 고3들의 해방구였습니다. 화려한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어설프게 제기를 차고, 마음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는 팽이를 정성껏 돌리며, 넓은 마당에서 온 힘을 다해 굴렁쇠를 굴리는 친구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교실 밖을 벗어난 해맑은 아이 같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문화탐방은 저에게 단순한 졸업사진 촬영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때로는 외롭고 지치기도 했지만, 고풍스러운 궁궐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장난치며 서로를 묵묵히 격려하는 끈끈한 연대의 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수험 생활 속에서 전통의 멋과 우리의 푸른 청춘이 어우러진 이번 하루는 남은 여정을 완주할 가장 강력하고 밝은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준 학교와 끝까지 함께 달릴 우리 3학년 동기들에게 깊은 사랑과 응원을 전합니다.



소감문



교육실습 소감문

꿈을 향한 첫 걸음, 환일에서 보낸 찬란한 4주의 기록

교육실습생 대표 김명훈 (철학과)



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생 대표를 맡았던 김명훈입니다. 교생 대표로 환일고등학교에 온 첫날의 긴장감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4주간의 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소감을 남기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29일까지의 실습 기간은 예비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주제가 바로 '다수결은 언제나 옳은가?'였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따르는 다수결의 논리 뒤에, 소수의 의견

을 묵살하는 소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아이들이 지루해하거나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도교사이신 이병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붙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일상적인 선택의 딜레마 상황들을 퀴즈처럼 던지며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다수결이 가진 맹점에 대해 알아본 후에는 학습지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소수의 인권 vs 다수의 생명권'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무리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태도에 대해 정리하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철학이 당장 시험 점수를 올리는 과목은 아닐지라도, 이번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 더 넓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많은 교생 선생님들을 대표해 학교와 소통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이 낯설고 서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학교생활에 적응해가며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았고, 점차 동료 교생들과 발을 맞추며 대표로서 소통하는 요령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깊이 있게 상담을 진행했던 것, 3반 학생들과 한마음이 되어 합창제를 준비했던 경험은 이후 제가 교사의 길을 걸어가며 겪을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게 해준 큰 지지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친근하게 다가와 준 3반 학생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눈을 반짝이며 저를 따라와 준 모든 환일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생 대표라는 자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믿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과 부족한 수업에도 밝은 미소로 화답해 준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기에 정말 행복하게 실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값진 성장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탐방 및 진로 멘토링 참여 소감문

막연했던 대학의 문을 열고, 내일의 꿈을 향해 달릴 이정표를 세우다

1학년 김연우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일 교실 안에서 칠판을 바라보며 '내가 왜 지금 이 힘든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막연한 의문과 슬럼프가 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목표는 멀고 흐릿하게만 느껴졌고, 내가 정말 원하는 전공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늘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에 찾아온 1·2학년 대학탐방 활동은 교실 밖 진짜 넓은 세상을 마주하게 하며, 제 마음속 식어가던 학업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펴준 최고의 자극제였습니다.

조별로 지정된 대학교에 도착해 캠퍼스 교문을 들어서서 순간, 푸른 잔디와 웅장한 대학 건물들, 그리고 자유롭게 캠퍼스를 누비는 대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에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포털 사이트 화면이나 입시 책자로만 보던 대학교를 눈앞에서 직접 마주하니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 멘토들과 발을 맞추어 진행된 캠퍼스 투어는 무척이나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의 깊은 역사와 학과별 특징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평소 동경하던 전공 강의실의 문을 열어보고 거대한 대학교 도서관의 열기를 몸소 체험하는 내내 '나도 반드시 이곳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강력한 내적 동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번 탐방에서 가장 유익하고 잊지 못할 순서는 단연 '선배 대학생 멘토들과의 진솔한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내신 관리와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선배 멘토들은 자신들이 직접 치열하게 겪어낸 실제 공부 비법과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팁, 그리고 학과 선택의 명확한 기준들을 아낌없이 전해주었습니다. 평소 입시와 진로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하자, 멘토들은 후배를 향한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들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책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선배들의 생생한 현실적 조언은 제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설계하는 데 엄청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꿈을 실현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지적 자극과 뚜렷한 목표 의식을 동시에 수확한 이번 탐방은, 남은 고교 생활을 흔들림 없이 달려갈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명하게 눈에 담은 대학 캠퍼스의 풍경을 이정표 삼아, 교실로 돌아온 지금 더 뜨겁게 학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제 꿈의 지평을 넓혀준 학교와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준 대학생 멘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안보체험학습 소감문

차가운 서해에 새겨진 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1학년 이주원



교과서 속에 나오는 역사나 '안보'라는 단어는 저에게 늘 먼 옛날의 이야기이거나, 휴전선 너머 막연하게만 존재하는 군인 아저씨들의 영역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다녀온 안보체험학습, 특히 경기도 평택의 '서해수호관' 방문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저의 무관심을 흔들고 가슴 가득 뜨거운 애국심을 심어준 숙연한 시간이었습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에 위치한 서해수호관에 들어섰을 때, 전시장 곳곳에 보존된 유물과 기록들이 주는 무게감이 단숨에 압도당했습니다.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뉴스 화면이나 텍스트로만 짧게 접했던 현대사의 아픈 사건들이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진지한 설명을 들으며 당시의 긴박했던 교전 상황과 적의 포탄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조국의 바다를 사수했던 해군 장병들의 용기 있는 대처를 전해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다 서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호국영웅들의 유품과 앓던 얼굴이 담긴 사진 자료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그리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 조국과 국민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앞에, 대강당에 모여 장난치던 우리 1학년 친구들 사이에서도 깊은 숙연함과 고마움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매일 누리는 당연한 하루하루는 누군가가 온몸으로 지켜낸 간절한 내일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찡찡하게 다가왔습니다. 교실 밖 역사의 현장에서 목격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막연했던 안보 의식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살아있는 책임감으로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북 분단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국방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장병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안보 체험은 저에게 단순한 현장 견학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추고 나라를 사랑하는 태도를 정립하게 해 준 소중한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이 푸른 강산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학생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환일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대회 관람 소감문

은빛 바퀴가 그린 땀방울의 궤적, 나의 코트를 깨우는 거대한 울림

2학년 우태인



이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울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를 관람하면서, 제 가슴속에는 그 어떤 경기보다 뜨겁고 묵직한 메시지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평소 라켓볼 선수로 코트 위에서 직접 땀 흘리며 활동하고 있기에, 테니스와 같은 라켓 스포츠가 단 한 번의 완벽한 스트로크를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연습과 무수한 반복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기를 보기 전부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과연 코트 위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남다른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었습니다.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굴리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며 날카로운 공을 받아 냈습니다. 라켓의 각도를 정교하게 조절해 공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코트 구석구석을 타격하는 매서운 모습은, 비장애인 엘리트 선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오히려 신체적 한계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네트를 넘어오는 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육탄 방어로 살려내는 집념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화려한 경기력 그 자체보다, 관중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할 정도의 노력'이 더 위대하게 다가왔습니다. 라켓 스포츠는 코트 안에서의 찰나의 순간을 지배하기 위해 수만 번의 새도우 훈련과 한계를 시험하는 체력 훈련이 매일 같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매일 운동을 하며 한계를 마주하는 힘든 훈련을 겪어왔기에, 선수들이 지금의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기까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과 땀으로 채웠는지 그 무게가 오히려 짐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관중은 경기장에서 반짝이는 선수들의 멋진 결과만을 보지만,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바퀴를 굴리며 땀 흘렸을 선수들의 모습이 그려져 가슴 깊은 곳에서 깊은 존경심이 샘솟았습니다. 아울러 선수들은 경기 중 실점하는 뼈아픈 상황에서도 끝까지 평정심과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멋진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서로를 뜨겁게 격려하며 스포츠가 지닌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숭고한 모습을 바라보며 코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어떤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과 꾸준히 훈련에 매진하는 성실한 태도라는 스포츠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번 국제대회 관람은 단순히 훌륭한 경기를 구경하는 일회성 시간을 넘어, 선수로서의 저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재검토하는 소중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라켓볼 선수로 활동하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힘든 훈련과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휠체어를 밀던 선수들처럼 꾸준히 도전하겠다고 단단히 다짐해 봅니다.

장애를 당당히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선수들의 투지는 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제 학창 시절과 선수 생활의 이정표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교사수상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김경신 선생님

스승의 날을 맞아 뜻깊은 교육감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이화평 선생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참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더욱 학생들과 소통하며 많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내수상

모범상 대표 수상자



1-1 선서빈



2-1 채준휘



3-1 서정훈



교외수상

대한사립학교장회 선행상



3-2 나재승



3-7 이준용



3-5 김태양



3-1 방예우



3-4 김성보



3-6 함주안

육군참모총장 표창

서울사립학교장회



제 12회 합창경연

대상

1-5 새들처럼

금상

2-2 출발

1-1 네버엔딩스토리

은상

2-1 고백

1-4 질풍가도

동상

2-3 그대에게

1-2 오래된 노래

퍼포먼스

2-6 사이렌

1-6 나는 나비

지휘자상



2-1 김승아



2-5 김주원



1-2 박영현



1-6 권성대

반주자상



2-1 노재원



2-2 김민재



주요 학사 일정

7월

7월 16일(목) 방학식, 리더십캠프
7월 22일(수)~7월 24일(금) 영재캠프
7월 20일(월)~7월 31일(금) 여름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8월

8월 18일(화) 개학식, 임명식(학생회)
8월 28일(금) 환경미화심사

9월

9월 2일(수) 고3 대수능모의평가, 고1,2 학력평가
9월 11일(금) 수업공개 및 학교방문의 날
9월 22일(화) 개교기념식 및 가을밤 열린음악회
9월 23일(수) 개교기념일



사격부 수상

2026 환일고 사격부 수상 내역



제6회 흥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25m | 속사권총 우승

50m | 권총 준우승, 개인 3위 수상